

병원서 환자에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길 수 있도록 도운 도내 한 종합병원 의사와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허위 장애진단서를 상습적으로 발급한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전북의 한 병원 의사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환자들에게 의사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브로커 조모(5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허위진단서로 보

의사·브로커 등 입건

23명에 허위로 발급 혐의

보험금 수수료 받아 챙겨

보험금을 타낸 환자 김모(42)씨 등 23명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지역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환자 23명에게 허위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의사를 연결시킨 브로커 조씨는 "장애진단서를 받으면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잘 아는 의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환자 1인당 200만~800만원씩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환자들은 이렇게 받은 허위 장애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총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환자들이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브로커

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진단서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을 확인한 뒤,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의사를 소개시켜줬다"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의사 A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의사 A씨와 브로커 조씨가 금품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차명계좌와 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추가 설치

전주시가 버스도착안내단말기가 설치된 시내버스 승강장을 늘리는 등 버스타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전주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전주·원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주대경륜장과 서곡마을 등 버스승강장 17개소에 버스도착안내단말기(Bus Information Terminal)를 추가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버스도착안내단말기는 실시간 버스 운행정보와 노선검색 등 버스정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 시정정보 등도 함께 안내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의 버스정보시스템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주시내버스 도착안내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주시내버스 403대의 노후화된 통신단말기를 신형 LTE방식의 단말기로 교체했다. 또, 교통정보센터의 서버를 교체하는 등 기존보다 향상된 배차정보시스템(BMS)을 구축해 버스 도착정보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시내버스 이용객들에게 버스운행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350개 승강장에 설치 운영 중인 버스도착안내 단말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단말기를 통해 제공되는 버스운행정보서비스 외에도 모바일을 통한 버스 도착 정보의 검색이 쉽고 편리하도록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중고차사이트 허위매물 올려 손님 유인 중고차 딜러 입건

중고차판매 사이트에 허위매물 사진을 올려 손님을 끌어들이던 중고차 딜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2일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임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는 임씨는 지난 7월 7일 한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2015년 3월식으로 주행거리가 1000km도 안 된 SUV 차량을 2000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손님을 유인한 뒤 다른 차량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2008년식 주행거리 13만7300km가 넘는 차량을 소유하고도 게시글에 허위의 글과 사진을 올려 손님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그는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차량을 반값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미끼로 손님들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재 기자



'검찰비리엔 공수처'

12일 오후 참여연대 회원들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플래시몹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하고 있다.

전주시, 추석 연휴기간 종합상황실 운영

559명 전직원 비상근무·시민불편 최소화

전주시가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행정서비스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전주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추석연휴기간 시민들과 귀성객이 편안하고 따뜻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시청 자치행정과에 운영·총괄반과 청소대책반, 교통대책반, 재해대책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양 구청과 보건소에서도 자체상황실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총 559명의 직원들이 연휴를 반납하고 비상근무에 돌

입한다. 종합상황실과 자체상황실에서는 시민들의 편안한 명절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과 도로, 상하수도, 청소, 가로, 보안등의 6대 생활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4개 반은 각 반별로 1명은 상황유지하고 나머지 1명은 현장순찰을 통해 사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예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양 구청 생활민원 처리반은 연휴기간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찰서와 소방서, 한국전력, KT, 도시가스 등 업

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전주시보건소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병의원 및 약국 등 총 692개소를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하는 등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했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보건소 내에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이 설치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등과 연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시민들과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응급진료 의료기관 및 상황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덕진경찰서 혁신파출소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

전주덕진경찰서 혁신파출소(소장 강미경)는 지난 9일 혁신자율방범순찰대 10여명과 함께 월방길 주택단지 등을 돌며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순찰을 펼쳤다.

이날 순찰대원들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빈집절도 예방을 위해 관내 상가 밀집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 등 범죄사각지대에 놓인 곳까지 철저히 살폈다.

또 순찰 중 만나는 주민들에게는 범죄예방홍보 전단지 배부 및 추석연휴기간 철저한 문단속, 보안시스템 작동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신광영 기자

전주시, 13~18일까지 관광안내소 운영

한옥마을 등 5곳

전주시가 5일간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해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전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전주 알리기에 나선다.

전주시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을 위해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6일간 한옥마을과 오목대, 경기전,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5개 관광안내소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시는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외국어통역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관광해설 서비스

도 제공할 계획이다. 관광안내소에서는 이번 명절 연휴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주를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전통 문화 1번지인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자민백화마을과 남부시장 청년몰, 국립무형유산원 등 한옥마을 주변 볼거리와 다양한 공연·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등을 소개하게 된다.

또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외국어 통역안내원들은 연휴를 맞아 전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관광안내를 제공하고,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추석 당일엔 제외하고 관광객들에게 한옥마을 및 경기전 정취해설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안심음식점 운영실태 점검

CCTV 주방공개로 식품 위생 불안·불신 해소

전주시가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음식물 감량 등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는 안심음식점의 운영 실태를 오는 30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안심음식점이란 전주시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한 사업으로, 현재 3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들 음식점에서는 음식점 주방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해 주방의 조리과정과 남은 음식 처리과정을 손님들이 객석에서 모니터를 통해 직접 볼 수 있도록 개방해 식품위생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객석에는 셀프서비스(Self-service)용 반찬냉장고를 설치해 모자라는 반찬은 손님이 직접 덜어먹을 수

있게 해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안심음식점의 △주방공개 CCTV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객석의 Self-service용 반찬냉장고 사용 등 음식문화 개선 실천 여부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 등 안심음식점 지정취소 기준 해당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강승권 전주시 자원위생과장은 "CCTV로 주방을 공개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안심음식점으로 확대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며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 위생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위생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북은행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